'노벨상 시즌' 고은 시인 문학상 수상 주목

오늘 물리학상·6일 문학상·7일 평화상·10일 경제학상 발표

평화상 이집트 민주화 이끈 청년단체 '4·6 청년운동' 1순위

3일(노르웨이 현지 시각)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노벨상 발표 시즌이 개막되면서 올해 노벨상의 영예를 안을 사람은 과연 누가될지와 예상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3일 생리·의학상,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맞혀온 학술정보 서비스회사 톰슨 로이터는 지난달 25일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예상되는 24명의 명단을 내놨다.

경제학상 후보 중에는 금융 중재와 모니터링 분석에 대해 연구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 개념을 소개한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수상 후보로 꼽혔다.

물리학 부문에선 알랭 아스펙트 프랑스 광학연구그룹 소장 등 '양자얽힘' 현상을 연구한 3명이 포함됐다.

톰슨 로이터의 발표에는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문학상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은 올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상과 문학상이 시대적 분위기를 타는 특성상 고은 시인의 수상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두 부문의 수상은 북아프리카·중동을 휩쓴 아랍 혁명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행인 것은 고 시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메리카 어워드' 상을 수상했고, 소설 '엄마를 부탁해' 등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평화상은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청년단체 '4·6 청년운동'과 지도자 이스라 압델 파타가 1순위 예측되고 있으며 이집트 민주화의 영웅으로 떠오른 와엘 그호님, 튀니지 혁명에 기여한 블로거인 리나 벤 므헨니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문학상의 경우도 아랍 혁명의 여파로 시리아의 시인 아도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본명이 알리 아메드 사이드인 아도니스는 지난 6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은구기 와 티옹고(케냐), 누루딘 파라(소말리아), 페테르 나다스(헝가리) 등과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일본)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올해는 노벨상 후보로 개인 188명, 단체 53개가 추천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벨상 후보들은 매년 1월31일 추천을 마감하지만 후보 추천 목록은 50년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전통을 고수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1 노벨상 발표 일정

구분	발표시각(한국시각)	
물리학상	10.4	6:45 PM
화학상	10.5	6:45 PM
문학상	10.6	8:00 PM
평화상	10.7	6:00 PM
경제학상	10.10	8:00 PM

※노벨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예상시각

보이틀러·호프만·슈타인만

노벨 생리의학상 3명 수상

보이틀러

호프만

슈타인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면역체계 활성화에 획기적 연구 업적을 이룬 브루스 보이틀러(미국), 율레스 호프만(룩셈부르크), 랠프 슈타인만(캐나다) 등 3명이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올해 노벨상(생리의학상 지칭) 수상자들은 면역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들을 발견함으로써 면역체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상금 1000만크로네의 절반을 슈타인만이 획득하며 보이틀러와 호프만이 나머지 500만크로네를 반씩 나눠 받는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 앞 둔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행정"

"행정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구청의 역할은 더 가까이 주민의 곁에 다가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해 '모든 주민이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어느덧 취임 1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감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뛰어다녔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정신 없는 시간이었지만, 예정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같아 만족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탓에 모든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 점은 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럽다.

신·구도심 양극화 해결 모두가 잘 사는 서구로

-전임 청장 시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취임 당시 서구 분위기가 혼란스러웠다.

▲대부분의 구청 직원들이 침체돼 있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도저히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원리와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인사도 약속했다. 점차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민원 처리과정중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주민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노인과 서민 생활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내 균형은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 작은 것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대책비를 인상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을 연결, 후원해주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배가운동' 참여 주민을 과거에 비해 3배 가량 늘렸다. 후원을 해주는 주민과 받는 주민 모두 행복해한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워 설치한 '직소민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해결보다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에 얽매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시되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 구청장이 관장하는 직소민원실을 만들었다. 민원 처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중요한 민원 현장은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1월 설치 이후 550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했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 양극화는 서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서구는 상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행정·금융기관이 집중돼있다.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다. 반면 양동이나 농성동 등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총 400억원을 들여 낙후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구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이면 균형 잡힌 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개막 D-7

세계 120여 도시·기구 참여

새로운 해법 제시 주목

세계 도시와 지구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120여 개에 달하는 도시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및 환경을 주제로 한 회의로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상 기후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 도시들이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시환경지표와 도시청정개발(CDM)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가도시들이 이에 참여할 경우 '리우 선언'과 '교토의정서' 등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의를 준비하는 기획단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오는 8일부터 각 도시 및 국제기구 대표단이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초청과 등록업무, 회의 의제 준비, 전시, 부대행사 등 관련되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브라질 쿠리치바, 스웨덴 예테보리 등 해외 72개 도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헤비타트(UN-HABITAT),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유네스코, OECD 등의 국제기구 12개, 국내 33개 도시 등 117개의 도시나 기구가 참여를 약속했다. 레스터 브라운 박사, 아미나 모하메드 UNEP 사무차장, 후앙 크로스 UN-HABITAT 사무총장 등 저명한 환경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한다.

정상회의 의제인 도시환경지표 개발 및 도시청정개발(CDM) 틀 제안, 광주선언문, 그리고 도시CDM 사업과 이의 진행을 위한 후속사업, 도시환경평가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저탄소 녹색도시상 시상, 저탄소 녹색도시 협의체 구성 등을 담은 광주이니셔티브 안도 모두 마련됐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정상회의를 앞두고 5일 오후 강운태 시장 등 시민·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거리 청소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윤헌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대구· 대전 교류 협력

'내륙 삼각벨트' 실무협 구성

광주·대구· 대전 등 내륙 대도시들이 내륙삼각벨트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시청에서 3개 대도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내륙거점도시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3개 대도시는 이 자리에서 내륙삼각벨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은 ▲3개 도시 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IT기반 스마트 헬스 케어 활성화 사업 ▲내륙거점도시 기업교류회 개최 ▲여행 바우처 품앗이 관광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실무부서 검토 후 확정해 2012년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들 도시들은 첫 협력사업으로 오는 6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3개 도시 시립합창단 연합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윤헌석기자 chadol@kwangju.co.kr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마감임박
10월15일 단하루!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관광5일 589,000원
고품격JAU+ 관광5일 799,000원
품격 골프5일(54H) 1,099,000원
광양훼리 큐슈3박4일 199,000원
8/28~12/21(매주 수,일출발)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5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상해,항주,소주 4일 419,000원
상해,항주,황산 4일 47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5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4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멜크 동유럽5국9일 1,290,000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원~
알펜타워+서유럽6국12일 1,790,000원~
스페인,포르투칼10일 1,9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중국
홈쇼핑HIT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원~
홈쇼핑HIT 상해4일(풀옵션) 349,000원~
계림(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원~
항공이동 서안,구채구5일 1,1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노팁 미서부,태평양일주8일 1,390,000원~
3대캐년 미서부완전일주 1,6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북구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및 홈페이지 참조